

교회소식

주님의 이름으로 평강을 전합니다!

현재 뉴욕시를(6/8 1단계 개방 예정) 제외한 뉴욕주의 모든 지역에서 제 1단계 업종들의(건설 및 제조) 경제활동이 재개되었고, 뉴욕주 중부의 5개 지역에서는 소매업을 비롯한 2단계 업종들을 재개방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웨체스터 지역에서 제 2단계 소매업 경제활동이 재개되고, 연합감리교회의 구체적인 건물사용 지침이 전달되면 (6/21 예상) 제한적으로나마 예배에 참석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별도의 통보가 있을 때까지는 예배 순서를 맡으신 분들만 예배당에 나와 예배를 인도하고, 실황을 유튜브로 중계합니다.

장년부 예배에 제한적인 참석이 시작되어도 모든 제한이 해제될 때까지는 주일학교 예배 - 유치/유년부 및 중고등부 - 는 교회에서 드리지 않습니다. 자녀들의 장년부 예배참석도 불가합니다. 중고등부는 현재와 같이 12시에 Zoom 으로 예배를 계속합니다. 주일학교 및 유치부는 6월 14일부터 오전 10시-10시45분 사이에 Zoom 을 통해 영상 예배를 드리기 위해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교회에 다시 모인다고 할지라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돌아갈 수는 없다고 합니다. 지금 오히려 배우고 훈련하는 것들이 - 개인과 가정에서 예배와 말씀과 기도예에 더욱 친밀한 은혜, 가능한 방법으로 서로 돌보는 것, 사회 속에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 - 다시 만날 때 더 나은 예배, 더 나은 교제, 더 나은 증거를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인종간의 차별과 편견, 무지와 증오가 드러난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미국 전역이 어렵습니다. 피해자가 아니라고, 가해자는 더욱 아니라고 무관심하거나 점잖은 원칙론 뒤로 숨어 분명한 불의에 무관심하고 아파하지 않은 것을 회개합니다. 자기 입장에 따라 주장하지만, 당분간 함께 아프지 않고는 해결될 것 같지 않습니다. 선부른 확신으로 답을 내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며, 치료와 공의를 구하며 기도할 때입니다.

섬기는 사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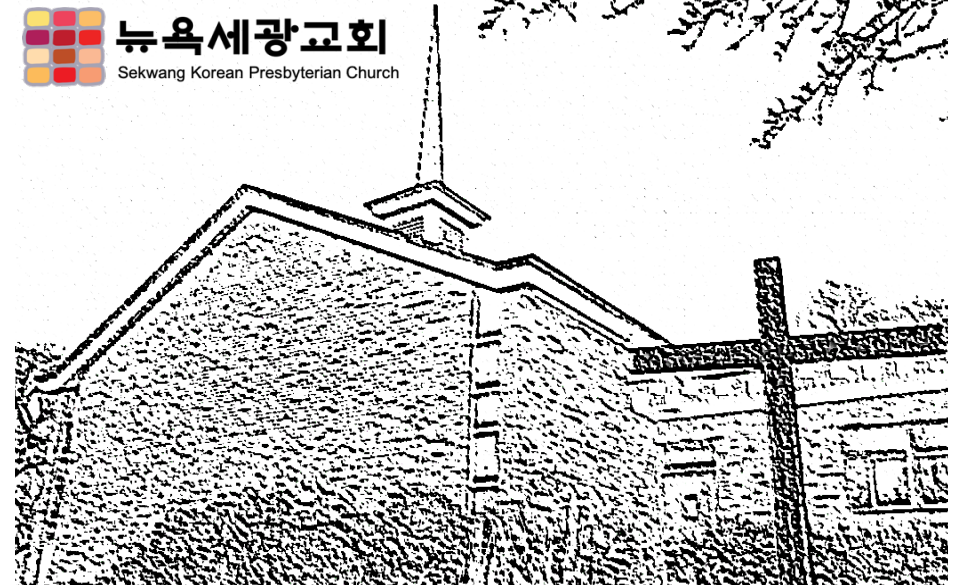
5월 안내: TBD
다음 주 대표기도: 이현주 집사 (시 8)
이번 주 친교: TBD
다음 주 친교: TBD

기도

“예배와 교제의 소중함을 다시 깨닫고, 은혜를 범상히 여긴 것을 회개합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가 회복되게 해주시기를.
하나님 권능의 손으로 더 이상의 확산을 막아주시기를.
환자들과 가족들, 의료진, 연구진, 정책 수립과 집행자들을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와 활동 제한으로 특히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해
공포와 혐오, 이기심과 차별의 바이러스가 퍼지지 않도록
교회가 믿음 위에 든든히 서고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제20권 21호

2020년 5월 31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마 5:14)

당분간 주일예배(오전 11시)와 매일 새벽기도(월-토 오전 6시)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영상으로 진행합니다.

뉴욕세광교회 유튜브 채널:

<https://www.youtube.com/user/Sekwangchurch>

성경공부 및 모임

출애굽기 성경공부	목 8pm / 회의실
	토 7:30am / 회의실
중·고등부 성경공부	금 8pm / 중·고등부실
새가족 모임	주일예배 후 목회자실
구역 모임	구역별

섬기는 분들

담임목사: 이민영
시무장로: 김동수, 서영수
교육부 전도사: Edwin Kim
지휘자: 임대영 / 반주자: 이영미

교회 연락처

(914) 874-3606 / nyskch@gmail.com
70 Bedford Road, Pleasantville, NY 10570
Homepage: www.nysekwang.org
Podcast: 뉴욕세광교회 주일설교

English Worship Sermons @ Sekwang



주일 예배

<오전11시>	인도자: 이민영 목사
예배를 여는 기도 Worship & Praise	인도자
신앙고백 Apostle's Creed	다함께
찬송 Hymn	478장(통78장) “참 아름다워라” This is my Father's world 다함께
대표기도 Prayer	시편 104:24-34, 35b 서영수 장로
특송 Anthem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임대영 집사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인도자
성경봉독 Word of God	마태복음 5:17-30 Matthew 5:17-30 인도자
설교 Sermon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민영 목사
인사 및 광고 Greetings & Announcements	인도자
찬송 Hymn	412장(통469장)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 데서” For Away in the Depths of My Spirit 다함께
축도 Benediction	이민영 목사

English Service

<12pm>	Worship Leader: Pastor Edwin Kim
Opening Praise	“There is none like You” Together
Call to Worship	Together
Worship & Praise	Together
Confessional Prayer	Together
Apostle's Creed	Together
Offering Prayer	Leader
Word of God	Luke 10:25-37 Leader
Sermon	“Who is Your Neighbor?” Pastor Kim
Reflection / Prayer	Together
Benediction	Pastor Kim

지난 주 주일 말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마태복음5:13-16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주님의 말씀은 세광교회 이름의 유래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시고 천국 백성의 복과 모습을 가르쳐 주신 후(팔복) 주신 이 말씀은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상 나라에서 살아가는 교회의 존재 이유와 사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금과 빛은 각자 가진 속성으로 인해 주변에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들입니다. 소금은 자신을 녹여 음식의 부패를 방지하고 음식물 본래의 맛을 배가시켜 줍니다. 빛은 어둠 속에서라도 안내하는 역할입니다. 밤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아침이 있는 것을 증거합니다.

이렇게 교회의 존재 이유는 세상에 있습니다. 산 위에 있는 도시, 등경 위의 등불처럼 감춰질 수 없습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준비가 되었든 그렇지 않든 무언가 맛을 내고, 무언가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쓰고 뚫은 맛을 내는 소금은 오히려 없는 것보다 해롭습니다. 탁하고 어지러운 빛은 그 불을 의지하는 사람의 발걸음을 혼란하게 할 뿐입니다. “착한 행실”이 비취지도록 애써야 할 이유입니다.

누구의 맛, 누구 빛이냐가 진짜 중요합니다. 자기 맛, 자기 빛을 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맛이고, 주님의 구원의 빛입니다. 다시 말하면 팔복의 맛이고 빛입니다. 팔복의 모든 복이 임한 사람, 팔복에서 복이 있다 하신 모습으로 변화해 가는 사람이 내는 맛이고 빛입니다. 그 영향력은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합니다. 주님의 구원과 은혜를 받을 때까지 섬깁니다. 교만하지 않고 겸손합니다. 아득바득 경쟁하지 않아도 베푸시는 은혜가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긍휼히 여기고 화평케 하고 손해를 볼지언정 의롭게 행합니다.

은혜 없이 맛을 내려고, 구원이 없는데 자기의 선함과 지혜로 사람들을 인도하려는 게 문제입니다. 주님의 위로와 긍휼히 여김을 모르는 채 자기 선함으로 긍휼히 여기려다가 이웃을 정죄하고 더 비참하게 만듭니다. 주님과 온전한 화평이 없이 화평케 하는 역할을 하려다가는 그나마 겨우 찾은 화평마저 잃기 십상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운신 판단 앞에 다스림을 받지 않은 채 의를 이루려는 것은 자기 눈에 들보로 지닌 채 이웃의 눈의 띠를 빼려는 어리석은 짓입니다. 팔복의 복을 모르고 영향력을 끼치려는 것은 맛을 잃은 소금과 같고, 팔복의 사람으로 주님께 가르침을 받지 못한 소경이 남을 인도하려다가 함께 구덩이에 빠지고 맙니다.

그러나 교회가 세상에 미칠 영향력이 이미 오신 예수님의 선함과 능력이라면 연약하고 미련한 교회라도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드러냅니다. 주님의 은혜에 목말라 애통하고, 주님의 의가 행해지기를 갈급해하며, 주님의 사랑을 알고 받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소금을 많이 넣는다고 맛이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등불을 아무리 많이 모아봐야 아침이 오지 않습니다. 아침은 날이 밝아야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 왕이신 예수께서 오셔서 임하는 겁니다. 구원은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는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때 회복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 주님께로 안내하는 등불, 구원받은 삶이 있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고 온전한 형상이 회복될 때까지 소금처럼 자신을 녹여 섬길 뿐입니다.